

노인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원 영 희*

I. 서 론

그 동안 우리나라는 출산율 및 사망률의 저하로 인해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보여 왔다. 인구고령화 현상과 더불어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 사회구조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노인문제는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 노인들은 일상생활에서 경제적 빈곤, 건강상실, 역할상실, 무력감 등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는 한편, 노인가족은 경제적, 정서적, 신체적 부양의 어려움을 지니게 된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노인층을 위한 연금제도 및 의료서비스 등 사회비용의 증가 및 세대간 형평성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생산성(productivity)'을 중시하는 현대사회에서 노인의 사회적 지위의 저하 및 일상생활에서 세대간 교류의 부족은 노인에 대한 태도나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는 노인편견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편견(prejudice)'이란 어떤 집단이나 그 집단에 속한 개인들에 대해 오해나 과장된 견해 등 근거 없이 부정적 태도(attitude)를 지니는 것을 의미한다(Allport, 1954). 노인편견은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노인의 사회적 지위 저하 및 이에 따른 노인경시, 대가족 중심의 가족구조의 와해 및 효를 기반으로 전통적 가족윤리의 약화 등 노부모부양 기피 현상과 같은 사회분위기 등과 연관되며, 이러한 사회분위기는 다시 사회구성원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에 대한 편견은 일반인들이 노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 노인들을 대면하는 상황에서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등 차별적 행동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노인편견이 개인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편재해 있는 경우 세대간 화합이나 사회통합을 저해시킬 수 있다. 따라서, 노인편견을 규명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노인이 처한 현실 및 노인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사안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사회편견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긴 하였지만 주로 인종(Jones, 1997; O'Connell & Bowden, 1997), 여성(곽삼근, 2002; 김영채, 1995; Baron et al., 1991; Inman & Baron, 1996), 정신장애 또는 정신장애인(양옥경, 1998; Atwood, 1982), 지체장애인 및 윤락녀(이재창 외,

* 한국성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01), 또는 동성연애자(Hansen, 1982) 등에 관한 것이었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한, 노인관련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태도를 주제로 한 연구들은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노인편견을 다루는 연구는 거의 부재한 편이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노인에 대한 편견이 어느 정도 실재하고 있는가에 대한 규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의 가장 큰 이유는 노인에 대한 편견을 수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측정도구의 부재 및 이에 근거한 경험조사가 없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편견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개발을 하고 이를 활용하여 노인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노인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의 고찰

1. 편견 및 노인편견에 대한 개념

편견(prejudice)의 어원은 라틴어 'praedudicium'에서 파생되는데, 'preae'는 'before'의 접두어와 'judicium'은 'judgement'라는 뜻의 단어가 합쳐진 것이다. 편견은 사실들이 이미 알려지기 전 선입견을 가지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내린 의견이나 판단을 뜻하는데 긍정적인 뜻보다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편견에 대한 개념은 한쪽으로 '치우침(bias)', '지나친 단순화(over-simplification)', '고정관념(stereotype)', '과도한 일반화(over-generalization)' 등과 같은 단어와 연관되어 표현된다(오성주, 2002).

Allport(1954)는 편견을 잘못되고 융통성 없는 일반화에 기초한 '반감(antipathy)'이라고 정의하였다. Ashmore 및 Del Boca(1976)는 편견을 사회적으로 정의된 집단과 그 집단에 속한 어떤 사람에 대해 갖는 부정적 태도라 하였고, 사실적 근거 없이 다른 집단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부분 선입견에 의해 형성된다고 하였다. Jackson(1992)은 편견을 특정 집단의 소속에 기초하여 차별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Fishbein(1996)은 편견을 특정 집단에 소속된 개인에 대해 비이성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 태도로 인식하였다. 한편, Kleg(1993)은 편견이란 지나친 일반화로 인해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일으켜 감정적 행동을 할 준비자세가 된 상태라고 보았다.

편견이라는 단어는 고정관념(stereotype), 차별(discrimination) 등과 혼용되어 사용되는데 그 의미에서 있어서 차이성을 지닌다. Freeman 및 그의 동료(1981)는 집단에 대한 부정적 느낌의 인지적 요소가 고정관념이고, 감정 내지 평가적 요소는 편견이며, 행동적 요소는 차별이라고 하였다. 편견은 어떤 사물, 현상, 개인이나 집단 등에 대해 그것에 적합하지 않은 의견이나 견해를 가지는 것으로 사람들이 특정 집단에 소속된 대상에 대해 갖게 되는 부정적 평가, 비호의적 태도를 의미한다(Allport, 1954). 반면, 고정관념은 사회편견의 인지적 차원을 구성하

고 특정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의 일반적이고 추상적 지식이 부각되는데 반해(김혜숙, 1999; Brubakers & Powers, 1976), 차별은 편견이나 고정관념의 부정적 결과로 어떤 집단이나 그 성원들에 대해 행해지는 부당한 행위를 의미한다(Jones, 2002).

노인편견이란 노인 개인이나 노인집단에 대한 부정적 오해나 과장된 견해를 의미한다. 노인편견은 일반사람이 노인 개인이나 노인집단을 확일적으로 판단하게 하고 노인의 부정적 특성을 확대하여 실제적 상황을 과장하는 한편 노인이 갖는 다른 중요한 특성을 무시하게 할 수 있다. 오늘날 젊은이들 중심의 사회질서 속에서 노인층은 비생산적, 고리타분한 존재로 치부되기 쉬운데, 이는 노인배제 현상 및 노인소외의 문제와 관련된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노인들에 대한 편견이 현존하고 있는데, 이는 관념적 또는 인식적 차원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노인들을 대하는데 있어서 차별적 행동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김문영, 2000).

버틀러는 'Ageism'이란 용어를 만들어 노인편견에 관해 언급하였다(Butler, 1969). Ageism이란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일방적 편견을 갖거나 이에 상응하는 차별적 행위들을 일삼는 일종의 연령차별로 인식된다(McGowan, 1996). Ageism은 인종차별(racism) 또는 성차별(sexism) 등 차별주의의 한 형태로 특정 연령층에 대한 부정적 관점, 현실과 괴리된 관점을 견지한다(Butler, 1987; Palmore & Manton, 1973). 이러한 점에서 Ageism의 대상은 어느 연령층이나 해당될 수 있다고 보나 실제 일반사회에서 사회편견의 주요 대상은 노인층인 경우가 많다(Levin & Levin, 1982; Palmore, 1990). 따라서 노인편견은 우리 사회의 노인문제의 한 양상으로 나타나며(박중우, 1999), 억압의 한 형태로서 사회복지적 고찰이 필요하다(김옥, 2002).

2. 노인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 동안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편견에 대한 일반적 논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왔지만, 노인편견에 관한 실제적 경험연구는 전무한 편이다. 편견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는 주로 정신장애인(양옥경, 1998), 지체장애인 및 윤락녀(이재창 외, 2001), 여성(곽삼근, 2002; 김영채, 1995) 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노인에 대한 편견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인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노인에 대한 태도(김윤정·정선아, 2001; 김혜경, 1997; 이선자, 1989; 이시형 외, 1999; 이영숙·박경란, 2002; 조명희, 1987; 차용은, 1980; 한정란, 2000; Hawkins, 1996; Matavish, 1971; Rosencranz & McNevin, 1969; Sanders et al., 1984; Seefeldt, 1984)나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박경란·이영숙, 2001; Hummert, 1993; Hummert et al., 1995; MacNeil et al., 1996; Schmidt & Boland, 1986)나 노인에 관한 이미지(김미혜·원영희, 1999; 서병숙·김수현, 1999; 이은미, 1990) 등 주로 인식적 차원에서 진척되어 왔다.

이와 같이 노인편견과 관련한 연구는 직접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노인편견과 관련한 내용을 기존의 편견에 관한 연구 및 노인태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중 대

상자와의 접촉경험이 태도나 인식에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느냐는 주요 이슈의 하나로 인식된다.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에서는 대상자와의 직·간접적 경험이 개인의 태도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점에서 노인과의 접촉경험은 노인편견을 형성하는데 주요 요인의 하나라 생각한다. 대부분의 연구(김광숙, 1987; 박경란, 1994; 조성혜, 1990; 최춘혁, 1992; Barton, 1999; Knapp, 2000; Pinquart et al., 2000; Porter & O'Connor, 1978; Ward et al., 1999)에서는 노인과의 접촉경험이 많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보다 긍정적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과의 접촉은 노인에 대한 막연하고 모호한 인식을 줄일 수 있으며 세대간 심리적 거리감을 좁힐 수 있거나(Knox et al., 1986) 정서적 친밀감을 형성하므로 노인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김혜경, 1997; 신귀연, 1995; Carstensen et al., 1982). 또한 노인과의 접촉은 자신의 노화에 대한 인식을 보다 긍정적으로 갖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Bringle & Kermer, 1993).

일반적으로 노인과의 직접적 접촉은 서로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지각을 형성하여 부정적 편견을 감소시킨다(Caspi, 1984; Peacock & Talley, 1984; Ward et al., 1999). Allport(1954)는 '편견의 본질(The Nature of Prejudice)'에서 외부집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그는 외부집단이란 한 개인이 소속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 집단으로 정의하면서 외부집단 구성원과의 개별 접촉은 외부집단 전체에 대한 보다 일반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동등한 지위와 외부집단 구성원과의 협동적 접촉이 외부집단에 대한 적대감을 경감시킨다고 하였다(Schwartz & Simmons, 2001).

Caspi(1984)는 최초로 '접촉가설(contact hypothesis)'이 인종간 상호작용이라는 원래의 연구 대상 범위를 세대간 상호작용이라는 부분으로 확대하여 적용시켰다. '접촉가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외부집단 구성원들과의 협동적 접촉으로 인해 외부집단 전체에 대해 보다 긍정적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는 노인들에 의해 학습된 경험을 가진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노인에 대한 태도가 보다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의 결과는 세대간 우호적 접촉이 연령간 편견을 완화시키고 노인에 대한 태도를 개선함에 있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노인과의 접촉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힌 연구결과도 있다. 예를 들어 젊은 세대와 병약한 노인과의 비자발적 접촉은 노인에게 비호의적 태도를 갖게 한다는 것이다(Baggett, 1981; Caspi, 1984; Revenson, 1989; Rosencranz & McNecin, 1969; Seefeldt, 1987). Revenson(1989)은 노인환자를 더욱 많이 접한 의사들이 노인들이 더욱 의존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부적응적이라 보았다.

한편, 다른 연구(Eddy, 1986; Investe, 1975; Thorson, 1975; Ward et al., 1996)에서는 노인과의 접촉은 노인에 대한 태도에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ddy의 연구(1986)에서 요양시설이나 아파트내 거주하고 있는 노인을 개별적으로 접촉한 경우 노인과의 접촉이후 노인에 대한 태도가 별로 변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과의 단순접촉보다 노인과의 교제하는 접촉의 선호도와 같은 접촉의 질(quality)에 따라 노인에 대한 태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Schwartz & Simmons, 2001). 이와 같이, 노인에 대한 접촉경험과 노인에 대한 태도의 관련성을 다루는 연구에서 그 결과는 일치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명확한 접촉에 대한 정의가 부정확하거나 표집대상 차이 등에서 연유될 수 있다.

또한, 조부모 또는 노부모의 존재 및 이의 관련 특성은 노인에 대한 편견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유교적 효사상의 영향으로 손자녀는 자신의 조부모를 통해 또는 장년층은 자신의 노부모를 통해 사회 전체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견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반인에게 있어서 가족내 조부모나 노부모는 노인층을 대함에 있어서 가장 접촉가능한 주요 인물이라는 점에서 자신의 조부모나 노부모를 통해 일반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유추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가족내 조부모나 노부모의 건강상태, 경제능력, 사회활동 등 특성은 노인편견에 어느 정도 관련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김지형·장윤옥, 2001). 또한 노인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조부모나 노부모의 생존여부 및 방문횟수, 동거경험, 접촉의 정도 및 질, 다른 노인과의 접촉(의미있는 노인의 존재, 노인대상 자원봉사활동, 대중매체 노인관련 접촉경험 등) 관련 변수의 차이를 고려할 수 있다.

조부모나 노부모의 생존여부는 노인과의 접촉기회의 가능성을 높이므로 직·간접적으로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선자, 1989). 노인과의 동거경험 역시 노인에 대한 편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의 결과는 일관되지 않게 나타난다. 일부 연구(김광숙, 1987; 서병숙·김수현, 1999; 임장순, 1971; 차용은, 1980; 최춘혁, 1992; 한정란, 2000)에서는 노인과 동거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노인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데 반해, 다른 연구들에서는 동거경험이 없는 경우 노인에 대해 더 수용적 태도를 갖는 것으로 밝혀지거나(임인혜, 1986), 노인에 대한 태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이기도 하였다(이미정, 1996; 이은미, 1990; 한정란, 2000, 2002). 노인과의 접촉빈도 역시 노인 편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 생각된다. 조부모와 주기적으로 접촉한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노인에 대해 호의적인 경향을 갖는 한편(Rosencranz & McNevin, 1969), 노인에 대한 태도차이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도 있다(한정란, 2000; 2002).

노인과의 동거경험이나 단순접촉 뿐만 아니라 접촉의 질 또한 중요하다(Steitz & Verner, 1987). 즉, 세대간 접촉에 대한 선호도 수준은 노인에 대한 보다 긍정적 태도와 유의미하게 관련이 있지만 접촉빈도는 그렇지 않은 편으로 보인다(Schwartz & Simmons, 2001). 더욱이 노인과의 질적 관계가 노인에 대한 태도 형성에 보다 많은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노인과의 친밀감은 노인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김연수, 1994; 김혜경, 1997; 신귀연, 1995), 이는 노인편견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유추된다.

의미 있는 노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 수 있다(원영희 외, 2002; 한정란, 2000). 개인에게 영향력 있는 노인에 대한 존재가 노인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데(Hawkins, 1996), 조부모를 비롯하여 의미 있는 노인과의 관계는 비노인층에게 강한 영향력을 주며 그들의 가치관과 목표 그리고 삶에 있어서의 선택에 긍정적 영향력을 미친다(Franks et al., 1993).

특히, 노인대상의 자원봉사경험은 노인이나 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공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노인자원봉사활동은 일상생활에서 노인과 접촉기회가 감소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노인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된다(Knapp, 2000). 노인대상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여 노인과 직접적으로 접촉한 사람의 경우 노인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갖게 되며(Anderson-Hanley, 1999; Fisher & Finklestein, 1999),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완화될 수 있다(Neururer & Rhoads, 1998). 이러한 결과들은 세대간의 접촉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대간 어떻게 접촉하는가, 즉 접촉의 질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대중매체 역시 노인편견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반인들은 TV 등 대중매체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노인과 관련된 정보를 얻게 되며 대중매체에서 나타난 특정 노인의 이미지를 전체 노인과 동일시하여 일반인은 물론 노인 자신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오늘날 대중매체에서는 젊음, 육체적 미, 생산적 활동 등이 강조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들은 기본적으로 무시되거나 부정적으로 비추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대중매체의 부정적 노인이미지가 개인에게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 노인은 사회적으로 무능력하고 소외된 존재로 인식되고 노인에 대한 막연한 편견을 가중시킬 수 있다(김미혜·원영희, 1999).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미만의 총 594명이다. 본 조사는 편의표집에 의해 중학교 2곳, 고등학교 2곳, 대학교 2곳, 그리고 기업체 2곳 및 개별 접촉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자료수집은 2003년 5월 30일에서 6월 20일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조사대상자들이 자기기입식(self-administered) 질문지에 직접 답하도록 하였다. 배포된 총 설문지는 650부였는데 설문회수는 598부로 92%였다. 이중 설문이 부실한 4부를 제외하고 본 연구에 최종 활용할 수 있는 설문지는 총 594부였다.

2. 조사도구 및 절차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서 노인편견 척도 및 노인과의 접촉경험, 그리고 일반적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으로 구성되었다.

1) 노인편견

노인에 관한 편견의 내용과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기존의 노인에 대한 태도 및 이의 관련 연구에서 나타나는 내용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예비면담에서 얻어진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또한, 노인편견과 관련하여 사람들의 개인적 의견 및 경험을 참고하였다. 노인 편견을 나타낼 수 있는 영역으로 대인관계, 사회활동, 개인적 특성 등이 구성되었다. 이의 문항은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응답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들을 수정하여 재구성하였다. 또한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문항 총 19개를 질문내용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문항은 4점 Likert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편견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편견 조사도구는 관련 전문가로부터 문항의 내용 타당도(content validity)를 검증받았다. 편견 척도의 Cronbach's alpha는 0.847로 높은 내적 신뢰도를 갖고 있다. 노인편견의 개념을 적절히 설명하고 있는지 즉,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해 검증하였다.

2) 노인과의 접촉경험

본 연구에서는 노인과의 접촉경험에 주목하였으며, 이를 크게 자신의 조부모나 노부모와의 경험 및 일반노인과의 경험 등으로 질문하였다. 청소년층의 경우 자신의 조부모에 대해, 그리고 장년층의 경우 자신의 노부모에 대해 우선적으로 답하도록 하였으나, 자신의 부모를 노인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부모에 대해 답하도록 하였다.

조부모나 노부모와의 관련특성은 개인에게 가족내 노인과의 직접적 경험을 대변하는 것으로 조(노)부모 특성, 조(노)부모와의 접촉 등으로 구분하였다. 전자의 경우 조(노)부모의 건강상태, 경제상황, 사회활동 등을, 후자의 경우 조(노)부모 생존여부, 동거경험, 물리적 거리, 접촉빈도, 친밀도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노인과의 경험은 노인과의 간접적 경험을 대변하는 것으로 노인과의 접촉, 대중매체 관련 등으로 살펴보았는데, 전자의 경우 자신에게 영향력이 있거나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노인유무 및 노인대상의 자원봉사경험 유무, 후자의 경우 대중매체 노출정도의 지표로 TV 시청시간을 물었고, TV에서의 노인이미지, 대중매체 영향력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3)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교육정도, 결혼상태, 종교 등에 관해 질문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정리와 분석은 SPSS 10.0 for Windows를 사용했으며, 서술적 분석방법으로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구하였다. 노인에 대한 편견문항들은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노인과의 접촉 및 경험이 노인편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조사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가 283명(47.6%), 여자가 311명(52.4%)으로 여자의 비율이 남자의 비율보다 다소 많았다. 응답자의 연령은 10대 211명(35.5%), 20대 200명(33.7%), 30대 50명(8.4%), 40대 66명(11.1%), 50대 67명(11.3%)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6.42세(sd=3.49)였다. 교육정도는 초등학교 이하 9명(1.5%), 중학교 재학/졸업이 80명(13.5%), 고등학교 재학/졸업 176명(29.6%), 전문대 졸업 55명(9.3%), 대학교 재학/졸업 263명(44.4%), 대학원 이상 11명(1.9%)이었다. 결혼상태에 있어서 미혼인 경우가 416명(70.0%)으로 기혼인 경우보다 많았다. 종교의 경우 기독교가 246명(41.4%)로 가장 높은 편이었고, 그 외 무교 218명(37.0%), 불교 59명(10.0%), 천주교 58명(9.9%), 기타 8명(1.3%) 등의 순이었다.

2. 노인과의 접촉경험

1) 조(노)부모의 특성

조사응답자의 조(노)부모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조(노)부모가 생존한 경우는 473명(79.6%)이고 생존하지 않는 경우는 121명(20.3%)이었다. 동거경험을 물어본 결과 동거경험이 있는 경우 345명(58.1%), 그렇지 않은 경우가 249명(42.0%)이었다.

조(노)부모가 생존한 경우에 한해 조(노)부모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노)부모의 건강상태가 아주 나쁜 편(2.4%)이거나 나쁜 편(20.4%)이라고 한 경우가 105명(22.8%)이었고, 보통인 경우는 186명(40.3%), 그리고 건강이 좋거나(31.5%) 아주 좋은 편(5.4%)이라고 한 경우는 170명(36.9%)이었다. 경제상태의 경우 아주 나쁜 편(2.0%)이거나, 나쁜 편(13.2%)이라고 한 경우가 70명(15.2%)이었고, 보통인 경우가 239명(51.8%), 그리고 좋은 편(27.1%)이거나 아주 좋은 편(5.9%)인 경우는 152명(33.0%)이었다. 조(노)부모의 사회활동의 경우 사회활동을 전혀 하지 않

는 편(11.3%) 또는 하지 않는 편(24.5%)인 경우 165명(35.8%), 보통인 경우 153명(33.2%), 활발한 편(25.4%) 또는 매우 활발한 편(5.6%)이라고 답한 비율은 143명(31.0%)이었다.

<표 1> 조(노)부모의 특성

문 항		N(%)
생존여부	무	121(20.3)
	유	473(79.6)
동거경험	없다	249(42.0)
	있다	345(58.1)
건강상태	아주 나쁜 편	11(2.4)
	나쁜 편	94(20.4)
	보통	186(40.3)
	좋은 편	145(31.5)
	아주 좋은 편	25(5.4)
경제상태	아주 나쁜 편	9(2.0)
	나쁜 편	61(13.2)
	보통	239(51.8)
	좋은 편	125(27.1)
	아주 좋은 편	27(5.9)
사회활동	전혀 하지 않는 편	52(11.3)
	하지 않는 편	113(24.5)
	보통	153(33.2)
	활발한 편	117(25.4)
	매우 활발한 편	26(5.6)
물리적 거리	외국에 산다	2(0.4)
	다른 지역에 산다	212(41.0)
	같은 지역에 산다	129(27.6)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산다	55(11.8)
	같은 집에서 산다	70(15.0)
접촉빈도	전혀 못 만난다	18(3.8)
	연1회	123(26.2)
	2~3달에 1회 이상	102(21.7)
	월 1회 이상	94(20.0)
	주 1회 이상	133(28.3)
친밀도	아주 나쁜 편이다	5(1.1)
	나쁜 편이다	20(4.3)
	보통이다	165(35.3)
	좋은 편이다	191(40.8)
	아주 좋은 편이다	87(18.6)

조(노)부모와의 물리적 거리를 묻는 질문에서 같은 집에 사는 경우 70명(15.0%),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55명(11.8%), 같은 지역에 사는 경우 129명(27.6%), 다른 지역에 사는 경우 212명(41.0%), 외국에 사는 경우는 2명(0.4%)에 해당되었다. 조(노)부모와의 접촉빈도의 경우 전혀 못 만나는 경우 18명(3.8%), 연 1회 정도 123명(26.2%), 2-3달에 1회 이상 102명(21.7%), 월 1회 이상 94명(20.0%), 주 1회 이상 133명(28.3%)이었다. 조부모와의 친밀도를 묻는 질문에서 아주 나쁜 편(1.1%) 또는 나쁜 편(4.3%)의 경우는 25명(5.4%), 보통인 경우 165명(35.3%), 좋은 편(40.8%) 또는 아주 좋은 편(18.6%)은 278명(59.4%)이었다.

2) 노인과의 경험

응답자에게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노인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없다고 대답한 경우가 376명(63.3%)으로 있다고 대답한 경우인 218명(36.7%)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었다. 한편, 노인대상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경우가 197명(33.2%)인 반면, 없다고 대답한 경우는 397명(66.8%)이었다.

<표 2> 노인과의 접촉

문 항		N(%)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노인유무	없다	376(63.3)
	있다	218(36.7)
노인 자원봉사 경험유무	없다	397(66.8)
	있다	197(33.2)

또한 응답자에게 대중매체 관련 질문을 하였는데, TV시청시간의 경우 주중 1일 평균 시청 시간은 1.95시간(sd=63.3), 주말 1일 평균 시청시간은 3.39시간(sd=2.29), 그리고 주 평균 시청 시간은 10.61시간(sd=8.67)이었다. TV에서 노인이미지가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에서 아주 나쁜 편(1.4%)이거나 나쁜 편(12.7%)이라고 한 경우는 83명(14.1%)인데 반해, 보통이라고 답한 경우는 294명(49.9%), 좋은 편(34.1%)이거나 아주 좋은 편(1.9%)이라고 한 경우는 212명(36.0%)이었다. 대중매체의 노인이미지 영향에 대한 질문에서 대부분의 경우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많다고 인식하였다. 대중매체가 노인이미지에 영향이 전혀 없거나(2.2%) 별로 없다(10.0%)고 대답한 경우는 72명(12.2%)인데 반해 보통이라고 한 경우는 169명(28.6%), 영향을 많이 주는 편(43.2%) 또는 영향을 주는 편(15.9%)이라고 대답한 경우는 349명(59.1%)이었다.

<표 3> 대중매체와의 접촉

문 항		N(%)
TV 시청시간 (평균, sd)	주중 1일 평균	1.95(sd=1.64)
	주말 1일 평균	3.39(sd=2.29)
	주 평균	10.61(sd=8.67)
TV에서의 노인 이미지	아주 나쁜 편	8(1.4)
	나쁜 편	75(12.7)
	보통	294(49.9)
	좋은 편	201(34.1)
	아주 좋은 편	11(1.9)
대중매체의 노인이미지 영향	영향이 전혀 없는 편	13(2.2)
	영향이 별로 없는 편	59(10.0)
	보통	169(28.6)
	영향을 주는 편	255(43.2)
	영향을 많이 주는 편	94(15.9)

3. 노인편견에 대한 요인분석

<표 4>는 노인편견을 나타내는 19개 항목들이 몇 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주요인분석(Principal factor with iteration)과 Varimax 회전을 통해 5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들 5개 요인들은 고유값(Eigenvalue)이 1.00 이상인 것들이며 전체변량의 55.029%를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요인은 전체 변량의 27.754%, 두 번째 요인은 전체 변량의 9.186%를, 세 번째 요인은 전체 6.823%를, 네 번째 요인은 전체 변량의 5.800%를, 그리고 다섯 번째 요인은 전체 변량의 5.463%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알기 위해 KMO and Bartlett's Test를 실시하였는데, 검증결과 부합도 계수가 높아서 개념을 적절히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KMO(Kaise-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는 .872, 그리고 Bartlett's Test of Sphericity의 χ^2 값은 2684.645, 그리고 유의도는 .000이었다.

<표 4> 노인편견의 요인분석

문항	요인적재값 (rotated factor loading)					공통분산값 (Communality)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노인은 성(性)에 관심이 없다			.590			.482
노인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					.701	.607
노인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다					.741	.671
노인은 문제해결 능력이 없다					.684	.653
노인은 다른 이를 배려하지 않는다	.555					.464
노년기에는 재혼하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이 낫다			.624			.487
노인은 손자녀를 버릇없게 만든다	.614					.482
노년기에는 이혼하는 것보다 참고 사는 것이 낫다			.743			.493
노인은 자녀들에게 부담이 된다	.610					.450
노인은 타인의 관심을 필요이상 요구한다	.620					.443
노인이 되면 이성에 대해 관심이 없어진다			.665			.626
노인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돈이 거의 필요없다		.533		.738		.448
노인이 되면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이 좋다						.620
노인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634		.559
노인이 되면 사회활동에서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다				.706		.614
노인이 되면 남에게 의존하려 든다	.709					.555
노인은 여가를 즐길 줄 모른다		.765				.713
노인은 문화생활에 관심이 없다		.818				.741
노인은 유행에 관심이 없다		.449				.347
고유값(Eigenvalue)	5.273	1.745	1.297	1.102	1.038	
분산비율(Variance)	27.754	9.186	6.823	5.800	5.463	
누적분산(Cumulative Variance)	27.754	36.941	43.766	49.566	55.029	
추출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방법: 직각회전방식(Varimax)						

<표 5>에서는 요인분석 결과 나타난 하위영역별 문항들을 제시하였으며 각 문항 및 영역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5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대인관계 영역'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4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를 '여가·문화 영역'을 명명하였다. 세 번째 요인은 4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성·결혼 영역'으로 명명하였다. 네 번째 요인은 3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를 '활동 영역'을 명명하였다. 다섯 번째 요인은 3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를 '역량 영역'으로 명명하였다.

노인편견에 대한 전반적인 점수는 1.72에서 2.44의 범위를 보이며, 노인편견의 총평균 점수

는 2.02(sd=.33)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편견에 대한 영역별 점수는 1.97에서 2.15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어서 본 측정도구의 중간점수인 2.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결과는 노인태도에 관한 선행연구(서병숙·김수현, 1999; 이선자, 1989; 이시형 외, 1999; 조명희, 1987; 차용은, 1980)에서 노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일반적 사회통념과 달리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영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대인관계 영역이 2.15(sd=.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결혼 영역은 2.06(sd=.46), 활동 영역 1.97(sd=.50), 역량 영역 1.94(sd=.33), 여가·문화 영역 1.91(sd=.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의 결과에 대한 시사점은 일반인들이 가장 편견을 갖게 되는 분야는 직접적 접촉을 통한 대인관계 영역이며, 따라서 노인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 및 일반인에게 세대간 교류 및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표 5> 노인편견의 영역 및 문항

영역	문항	평균	표준편차
대인관계	노인은 타인의 관심을 필요이상 요구한다	2.44	.67
	노인이 되면 남에게 의존하려 든다	2.29	.69
	노인은 손자녀를 버릇없게 만든다	2.00	.67
	노인은 자녀들에게 부담이 된다	2.12	.69
	노인은 다른 이를 배려하지 않는다	1.91	.65
	평균	2.15	.45
여가·문화	노인은 여가를 즐길 줄 모른다	1.82	.60
	노인은 문화생활에 관심이 없다	1.80	.57
	노인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돈이 거의 필요없다	1.72	.60
	노인은 유행에 관심이 없다	2.31	.70
	평균	1.91	.44
성·결혼	노인은 성(性)에 관심이 없다	1.99	.58
	노년기에는 재혼하는 것보다 혼자사는 것이 낫다	1.92	.72
	노년기에는 이혼하는 것보다 참고사는 것이 낫다	2.34	.78
	노인이 되면 이성에 대해 관심이 없어진다	1.99	.57
	평균	2.06	.46
활동	노인이 되면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이 좋다	2.01	.67
	노인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1.99	.66
	노인이 되면 사회활동에서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다	1.92	.60
	평균	1.97	.50
역량	노인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	2.05	.58
	노인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다	1.86	.58
	노인은 문제해결 능력이 없다	1.90	.55
	평균	1.94	.45
총편견 평균		2.02	.33

4. 노인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의 독립변인인 노인의 일반적 속성, 노인과의 접촉경험이 노인편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확인한 결과 모든 변수에 있어서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분산확대 요인) 값이 4 이상이 넘지 않아 회귀분석을 실시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모델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4.021$, $p < .001$) 모델의 설명력은 17.9%였다.

여러 요인들중 노인편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조(노)부모의 동거경험($Beta=-.158$), 사회활동($Beta=-.158$), 친밀도($Beta=-.158$),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노인 유무($Beta=-.152$), 시청시간($Beta=.118$), 성별($Beta=.105$) 등의 순이었다. 즉, 조(노)부모와의 동거경험이 없는 경우, 조(노)부모의 사회활동이 활발하지 않을수록, 조(노)부모와의 친밀도가 낮을수록,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노인이 없는 경우, TV 시청시간이 많을수록, 남성인 경우 노인편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령, 결혼유무, 교육정도, 종교유무, 조(노)부모의 건강상태, 경제상황, 물리적 거리, 접촉빈도, 노인대상 봉사유무, TV에서의 노인이미지, 대중매체 영향력 등의 요인들은 노인편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주목할 사항은 노인편견에 있어서 노인의 사회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노인의 사회활동은 일반인에게 노인이 주체적 삶을 영위하고 사회적 유용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편견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노)부모와의 동거경험이 노인편견과 관련 있다는 사실에서 노인과의 동거 경험 자체가 노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부정적 인식이나 태도를 갖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본다. 이의 결과는 노인의 동거경험이 노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김광숙, 1987; 서병숙·김수현, 1999; 임인혜, 1986; 임장순, 1971; 최춘혁, 1992; 한정란, 2000).

조(노)부모와의 친밀도의 경우 세대간 접촉의 양이 아닌 접촉의 질이 노인편견을 적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점은 조(노)부모와의 개인적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일반노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는다는 김혜경(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본인이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노인유무 역시 노인편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조부모가 아니더라도 다른 노인과의 뜻깊은 접촉을 직·간접적으로 하는 경우 노인에 대해 더 호의적일 수 있다는 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조(노)부모와의 접촉빈도는 노인편견에 영향을 유의미하게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들의 접촉의 질이 노인태도와 관련성이 있으나 접촉빈도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다는 Schwartz 및 Simmons(200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성을 지닌다. 하나는 집단 접촉이 외부집단에 대한 태도 형성에 관련되므로, 덜 우호적 조건에서의 노인접촉이 노인편견을 강화시키거나 노인편견 해소에 영향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실천적 의미에서 노인과의 접촉 조건을 보다 우호적으로 전환함으로써 노인편견

이 완화되거나 해소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6> 노인편견에 대한 회귀분석

변 수		b	Beta
상 수		46.460	
인구학적 특성	성별(남자=1)	1.286	.105*
	연령	-1.649E-02	-.029
	결혼유무(결혼=1)	1.096	.075
	교육정도	.439	.087
	종교유무(종교있음=1)	-.399	-.032
조(노)부모 관련 특성	생존유무(생존=1)	-.243	-.081
	동거경험	-1.97	-.287**
	건강상태	.624	.089
	경제상황	-.354	-.046
	사회활동	-.928	-.158**
	물리적 거리	.409	-.072
	접촉빈도	-.339	-.032
	친밀도	-1.162	-.158**
노인과의 경험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노인 유무(유=1)	-1.911	-.152**
	노인대상 봉사유무(유=1)	-.346	-.027
	TV 시청시간	7.799E-02	.118*
	TV에서의 노인이미지	-.264	-.032
	대중매체 영향력	-6.36E-02	-.010
R ²		.179	
조정된 R ²		.135	
F값		4.021	
p값		.000	

* p<.05 **p<.01 *** p<.001

본 연구의 결과, 대중매체의 대표적 기체인 텔레비전의 시청시간이 노인편견에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중매체속 노인이미지가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대중매체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일반대중에게 여과 없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노년기나 노화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내재할 가능성을 높힐 수 있고 궁극적으로 노인편견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성별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노인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긍정적 태도를 보인다는 선행연구(이선자, 1989; Hawkin, 1996; Hoffman, 1980)의 결과와 유사하다. 성별이 노인편견과 유의하게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은 노인태도가 성역할과 밀접히 관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즉 여성은 돌보는 역할에 사회화되어 왔고

남성보다 감성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사회생활에서 경쟁적 역할에 보다 익숙하여 생산성을 더욱 증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의 결과를 유추해 볼 수 있다.

V. 결 론

우리 사회는 인구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해 노인인구의 절대수 및 전체인구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보다 많아지고 있으며, 고령화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오늘날 사회에서 청·장년층 위주의 생활이 노년층의 그것보다 우선시되며 세대간 단절로 인해 세대교류나 세대통합이 더욱 어려움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비노인층은 노인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 있으며, 노인에 대한 편견은 노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잘못된 태도나 차별적 행위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노인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편견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이를 완화내지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편견의 그 수준이나 양상을 살펴보고 노인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 및 그에 따른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편견에 대한 전반적인 점수는 1.72에서 2.44의 범위를 보이며, 노인편견의 전체 평균점수는 2.02(sd=.33)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편견에 대한 영역별 점수는 1.97에서 2.15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대인관계 영역이 다른 영역보다 이의 점수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노인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 및 일반인에게 세대간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노인편견에 있어서 조(노)부모와의 동거경험, 사회활동, 친밀도,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노인 유무, TV 시청시간, 성별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노)부모와 동거경험이 없을수록, 조(노)부모의 사회활동이 활발하지 않을수록, 친밀도가 낮을수록,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노인이 없는 경우, 시청시간이 많을수록, 남성인 경우 노인편견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의 결과상 주목해야 할 사항은 노인의 적극적 사회활동이 노인편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 노인들이 적극적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은 물론 여가활동, 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한 기회가 제도적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조(노)부모와의 친밀도 및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노인의 존재유무가 노인편견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세대간 접촉의 양이 아닌 접촉의 질이 노인편견을 적게 하는 요인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중요한 타자(significant others)'로서의 노인, 즉 친밀감이 있거나 선호 또는 존경의 대상으로서 노인의 존재는 노인편견을 완화시키거나 해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노인상 또는 노인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더불어 노화인지 교육 및 세대교육 프로그램이 개발·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또한 어느 정도 노인편견과 관련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대중매체의 대표적 기체인 텔레비전의 시청시간이 노인편견과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대중매체 속 노인프로그램에서 묘사되는 노인이미지에 대한 개선 문제를 거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오늘날 대중매체에서 노인들이 중심인물이 아닌 주변인물로 묘사되며, 성격이 고집스럽거나 효도만을 강요하는, 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의존적이고 무기력한 존재, 회화적 존재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익차원에서 대중매체 관련 내용의 현실적이고 긍정적 노인이미지 묘사가 필요하다. 고령화사회에 있어서 대중매체의 역할은 노인복지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김미혜·원영희, 1999). 방송에서 노인의 현실적 삶을 조명하고 노인에게 유익한 정보, 노년기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노인에게 실제적 도움을 주고 삶의 적극적 자세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대중매체가 노인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과 이해를 도모하고 노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태도에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대중매체에 있어서 노년기 생활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내용을 전달하므로 우리 사회의 올바른 노인문화를 선도하고 세대간 사회통합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노인대상 자원봉사활동이 유의미하게 노인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노인대상 자원봉사자들을 형식적으로 만나는 것이 별 효과성이 없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대간 단순한 접촉이나 상호교류를 넘어서서 세대간 질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인편견을 완화시키는데 효과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노인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전환시키고 노인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노인과의 질적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천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자신의 조부모나 친밀한 노인과의 질적인 접촉,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활동적인 노인과의 접촉을 증가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Porter & O'Conner, 1978). 예를 들어 노인이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자원봉사활동은 노인의 적극적 사회활동과 사회적 유용성에 대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태도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원영희 외, 2002). 나아가 노인 및 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가 필요하다. 노인에 대한 편견완화를 위해 노인과의 접촉이나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나 사회, 그리고 대중매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노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세대교류의 기회와 세대연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관계성과 다양성을 지향하는 21세기에 있어서 노인편견을 없애고 미래의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세대관계의 방향설정 및 새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지역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대상자에 국한하여 편의표집하였으므로 이의 결과를 사회일반의 노인편견이라고 일반화할 수 없다. 따라서 보다 많은 조사대상을 확률표집하여 결과의 일반성을 얻도록 하며 지역별, 문화집단별, 국가별 등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연구 작업이라 할 것이다. 둘째, 노인편견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경험하고도 인정하지 않는 등 편견

연구에서 흔히 일어나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양적 접근과 함께 심층면접, 포커스그룹 등 질적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노인편견에 관한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노인편견을 형성할 수 있는 영역을 충분히 다양하게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노인편견 경험을 직접적으로 물었으므로 응답의 거부감이 다소간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개인적 편견과 사회적 편견에 대한 차별성, 경험에 근거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편견의 차이성 등을 구별하기 위해 방법론적으로 보완적 노력이 필요하며 보다 타당한 척도를 개발하여 노인편견에 대한 연구를 심화해 나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곽삼근. 2002. "한국의 대중매체에 나타난 성편견 문제", 《문명연지》, 3, 1, 183-212.
- 김광숙. 1987. 청소년의 노인관에 대한 조사연구: 서울시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 김문영. 2000. "Ageism을 통해 본 노인차별에 관한 고찰", 《정신간호학회지》, 9, 4, 515-524.
- 김미혜 · 원영희. 1999. "새로운 이미지 정립을 위한 노인광고: 신문매체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회》, 19, 2, 193-214.
- 김연수. 1994. 《부모-조부모 관계와 손자녀-조부모 친밀도가 청소년의 노인과 노화에 대한 사실인지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석사논문.
- 김영채. 1995. "추론분석을 통해 본 성차편견의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실험 및 인지》, 7, 2, 113-129.
- 김욱. 2002. "억압의 한 형태로서의 노인차별주의(Ageism): 사회복지적 대응과 함의", 《사회복지정책》, 14, 97-118.
- 김윤정 · 정선아. 2001.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에 대한 인식과 행동간의 관계구명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 6, 173-183.
- 김지형 · 장윤옥. 2001.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이 노인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 5, 83-99.
- 김혜경. 1997.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조부모와의 세대차이에 관한 연구: 미국 이민가족내의 한국청소년과 미국청소년간의 비교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 4, 65-79.
- 김혜숙. 1999. "집단범주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편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 1, 1-33.
- 박경란. 1994. "부모-조부모 관계의 질이 청소년기 손자녀-친조부모간의 유대관계에 미치는 영향: 부산시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1 (2), 71-83.
- 박경란 · 이영숙. 2001. "대학생이 갖고 있는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분석", 《한국노년학》, 21 (2), 71-83.

- 박종우. 1999. "한국사회의 연령주의(Ageism)와 노인문제", 《경북대 사회과학》, 11, 51-68.
- 서병숙·김수현. 1999.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 연구", 《한국노년학》, 19, 2, 97-111.
- 신귀연. 1995.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한 노인 이미지》. 국민대 석사논문.
- 양옥경. 1998.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편견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5, 8, 231-261.
- 오성주. 2002. 《편견문화교육》. 다산글방.
- 이미정. 1996. 《아동의 노인에 대한 인식 연구》.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 이시형 외. 1999. 《노인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 및 부양의식》.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이선자. 1989. 각 연령별로 본 노인에 대한 태도의 심리학적 고찰. 《한국노년학》 9. 79-91.
- 이영숙·박경란. 2002. "노년학 교육이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1 (3), 29-41.
- 이은미. 1990. 《중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이미지에 관한 연구: 텔레비전의 드라마와 코메디물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이재창·송판재·홍영오. 2001. "사회적 오점보유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 및 자존감에 관한 연구: 지체장애인 및 윤락녀를 중심으로", 《사회문제》, 17, 1, 119-137.
- 임인혜. 1986. 《한국 청소년의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임장순. 1971. 《노인에 대한 중학생의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 원영희·김동배·이금룡·한정란. 2002.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중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2 (2), 131-146.
- 조명희. 1987.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사회심리적 태도 분석", 《지역환경》, 5. 73-87.
- 조성혜. 1990. 《대학생 태도분석에 따른 노인복지 대책》.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 차용은. 1980. "노인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 연구: 전북지방을 중심으로", 《전주대학논문집》, 9, 2, 39-262.
- 최춘혁. 1992. 《노인과 노인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연구: 서울시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 한정란. 2000.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0 (3), 115-127.
- 한정란. 2002. "Undergraduate Students' Attitudes toward Older Persons in Korea". *Asian Regional Association for Home Economics*, 9, 1, 44-49.
-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N.Y.: Doubleday.
- Anderson-Hanley, C. 1999. "Experiential Activities for Teaching Psychology of Aging". *Educational Gerontology*, 25, 449-456.
- Ashmore. R. D., & Del Boca, F. K. 1976. "Psychological Approaches to Understanding Intergroup Conflict". In P.A. Katz (Ed.). *Towards the Elimination of Racism*. N.Y.: Pergamon Press.
- Atwood, N. 1982. "Professional Prejudice and the Psychotic Client", *Social Work*, March, 9-33.

- Baggett, S. 1981. "Attitudinal Consequences of Older Volunteers in the Public School Setting". *Educational Gerontology*, 7, 21-33.
- Barton, H. 1999. "Effects of an Intergenerational Program on the Attitudes of Emotionally Disturbed Youth toward the Elderly". *Educational Gerontology*, 25, 3, 623-640.
- Baron, R. S., Burgess, M. L., & Kao, C. F. 1991. "Detecting and Labeling Prejudice: Do Female Perpetrators Go Undetected?"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7, 115-123.
- Bringle, R. G. & Kremer, J. F. 1993. "Evaluation of an Intergenerational Service-learning Project for Undergraduates". *Educational Gerontology*, 23, 3, 656-670.
- Brubakers, T. & Powers, E. 1976. "The Stereotypes of 'Old': A Review and Alternative Approach", *Journal of Gerontology*, 31, 4, 441-447.
- Butler, R. N. 1969. "Ageism: Another Form of Bigotry", *The Gerontologist*, 9, 243-246.
- _____ 1987. Ageism. In G. Maddox et al., (Ed.). *The Encyclopedia of Aging*, N.Y.: Springer Publishing Co.
- Carstensen, L., Mason, S. E., & Caldwell, E. C. 1982. "Children'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An Intergenerational Technique for Change". *Educational Gerontology*, 8, 291-301.
- Caspi, A. 1984. "Contact Hypothesis and Inner-age Attitudes: A Field Study of Across-age Contact".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7, 47-80.
- Eddy, D. M. 1986. "Before and after Attitudes toward Aging in BSN Program".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12, 30-34.
- Fishbein, H.D. 1996. *Peer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Evolutionary, Cultural, and Developmental Dynamics*. CO: Westview.
- Fisher, B. J. & Finklestein, M. S. 1999. "The Gerontology Practicum as Service-learning". *Educational Gerontology*, 25, 4, 393-409.
- Franks et al., 1993. "Intergenerational Influences on Midwest College Students by their Grandparents and Significant Others". *Educational Gerontology*, 19, 3, 265-272.
- Freeman, J. L., Sears, D.O., & Carlsmith, J. M. 1981. *Social Psychology*(4th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Hawkins, M. J. 1996.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Elderly Persons", *Educational Gerontology*, 22, 3, 271-280.
- Hummert, M. L. 1993. "Age and Typicality Judgements of Stereotypes of the Elderly: Perceptions of Elderly versus Young Adult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37, 217-226.

- Hummert, M. L., Garstka, T. A., Shaner, J. L. & Strahm, S. 1995. "Stereotypes of the Elderly held by Young, Middle-aged, and Elderly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49, 5, 240-249.
- Inman, M. L., & Baron, R. S. 1996. "Influence of Prototypes on Perceptions of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Psychology*, 70, 4, 727-739.
- Investor, C. L. 1975. *Attitudes of Adolescents toward the Aged*.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 of Georgia.
- Jackson, L. A. 1992. "In What Way is the Unfinished Mind Unfinished?" *Psychological Inquiry*, 3, 163-165.
- Jones, J. M. 1997. *Prejudice and Racism*. N.Y.: McGraw-Hill Companies, Inc.
- Jones, M. 2002. *Social Psychology of Prejudice*. NJ: Prentice Hall.
- Kleg, M. 1993. *Hate, Prejudice, and Racism*. NY: State Univ. of New York.
- Knapp, J. L. 2000. "Changing Students' Perceptions of Aging". *Educational Gerontology*, 26, 7, 611-621.
- Knox, V. J., Gekoski, W. I., & Johnson, E. A. 1986. "Contact with and Perceptions of the Elderly". *The Gerontologist*, 26, 309-313
- Levin, J., & Levin, W. 1982. *Ageism: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the Elderly*. Belmont, C.A.: Wadsworth.
- MacNeil, R. D., Ramos, C. I., & Magafas, A. M. 1996. "Age Stereotyping among College Students : A Replication and Expansion", *Educational Gerontology*, 22, 3, 229-244.
- Matavish, D. G. 1971. "Perceptions of Old People: A Review of Research Methodologies and Findings", *The Gerontologist*, 11, 4, 90-101.
- McGowan, T. G. 1996. *Ageism and Discrimination*. *Encyclopedia of Gerontology: Age, Aging and the Aged*. CA: Academic Press.
- Neururer, J. & Rohoads, R. A. 1998. "Community Service: Panacea, Parados, or Potention".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9, 321-330.
- O'Connell, L., & Bowden, C. 1997. "Must Stereotyping be Extreme to be Harmful? The Relationship between Degree of Stereotyping and Prejudice", *Sociological Spectrum*, 17, 103-121.
- Palmore, E. B. 1990. *Ageism: Negative and Positive*. NY: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Palmore, E., & Manton, K. 1973. "Ageism Compared to Racism and Sexism", *Journal of Gerontology*, 28, 363-367.
- Revenson, T. A. 1989. "Compassionate Stereotyping of Elderly Patients by Physicians: Revising the Social Contact Hypothesis". *Psychology and Aging*, 4, 230-234.
- Rosencranz, H. A. & McNevin, T. E. 1969. "A Factor of Attitudes toward the Aged". *The*

Gerontologist, 9, 55-59.

- Sanders, G. F., Montgomery, J. E., Pittman, Jr. J. F., & Balkwell, C. 1984. "Youth'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3, 1, 59-70.
- Schimit, D., & Boland, S. 1986. "Structure of Perceptions of Older Adults: Evidence for Multiple Stereotypes", *Psychology and Aging*, 1, 255-260.
- Schwartz, L. & Simmons, J. P. 2001. "Contact Quality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Educational Gerontology*", 27, 127-137.
- Seefeldt, C. 1984. "Children'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9, 319-28.
- _____, 1987. "The Effects of Preschoolers' Visits to a Nursing Home". *The Gerontologist*, 27, 228-232.
- Steitz, J. A., & Verner, B. S. 1987. What adolescents know about aging. *Educational Gerontology*, 13, 357-368.
- Peacock, W. E., & Talley, W. H. 1984. "Intergenerational Contact: A Way to Counteract Ageism". *Educational Gerontology*, 10, 13-24.
- Pinquart, M., Wenzel, S., & Sorensen, S. 2000. "Changes in Attitudes among Children and Elderly Adults in Intergenerational Group Work". *Educational Gerontology*, 26, 6, 523-540.
- Porter, K., & O'Connor, N. 1978. "Changing Attitudes of University Students to Old People". *Educational Gerontology*, 3, 139-148.
- Thorson, J. A. 1975. *Attitudes toward the Aged as a Function of Selected Personal Characteristic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 of Georgia.
- Ward, C. R., Duquin, M. E., & Streetman, H. 1999. "Effects of Intergenerational Message on Future Caregivers: Attitudes toward Aging", the Elderly and Caring for the Elderly. *Educational Gerontology*, 25, 3, 35-46.
- Ward, C. R., Kamp, L. L., & Newman, S. 1996. "The Effects of Participation in an Intergenerational Program on the Behavior of Residents with Dementia", *Activities, Adaptation and Aging*, 20, 4, 61-76.